

카시트

특특히 알고 계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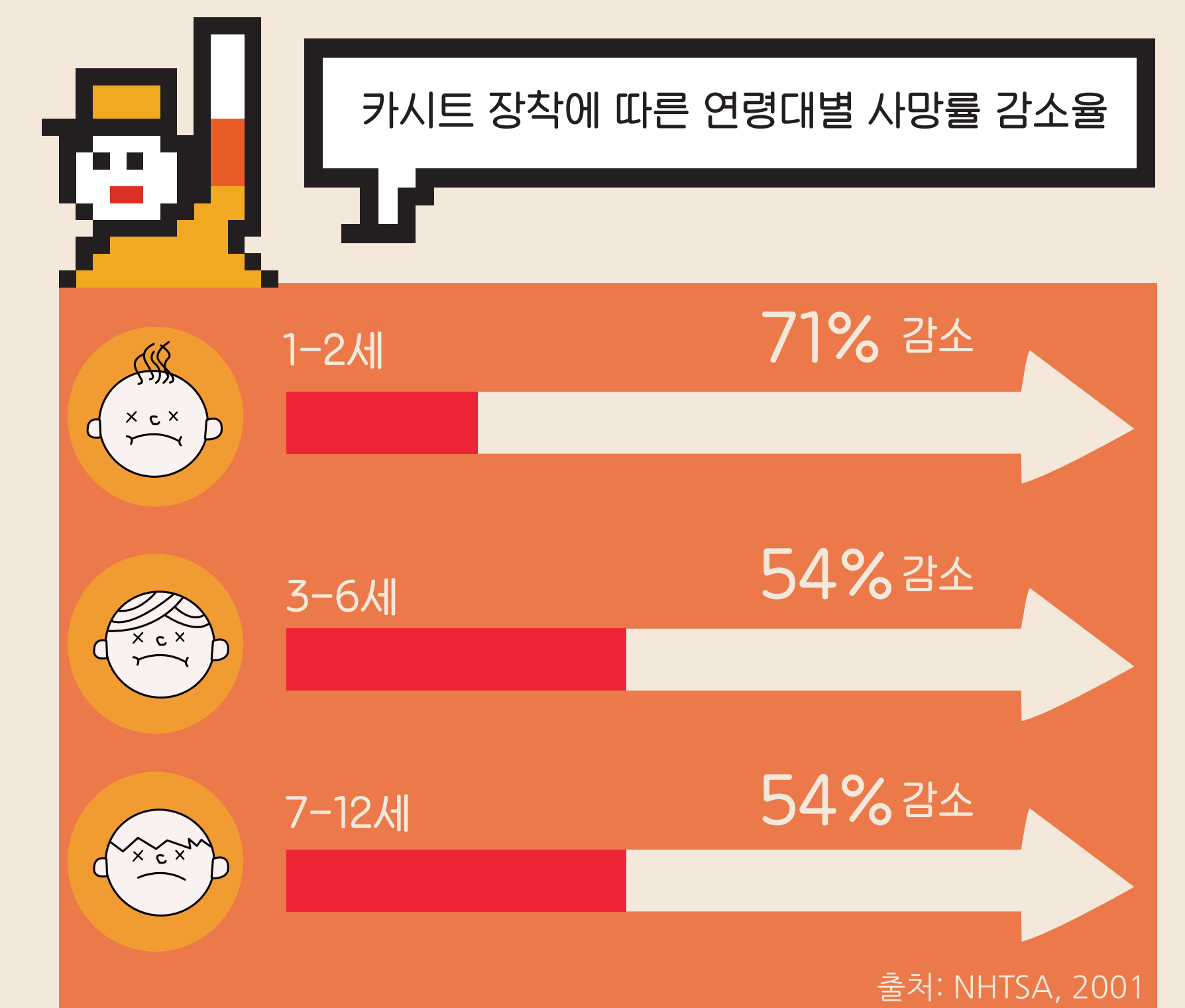


카시트, 선택이 아니라 의무!

모든 도로에서 6세 미만 유아는 **카시트**를 장착하고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의무화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

주의사항, 확인했나요?

- ✓ 체형에 맞는 카시트
- ✓ 뒷좌석에 승차하기
- ✗ 부모님이 안고 타지 않기
- ✓ 카시트 단단히 고정하기
- ✗ 외투를 벗고 타기
- ✓ 카시트 벨트 조절하기
- ✓ 카시트 어깨 띠 시작점 조절하기



얼마나 시행 중인가요?

국가별 카시트 착용률

국가	착용률
영국	95%
독일	96%
한국	39.4%

도로 카시트 착용률

고속도로
7명 중 3명 착용 X

도시부도로
3명 중 1명 착용 X

2015년도 교통안전공단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보고서

0 세 1 세 2 세 3 세 4 세 5 세 6 세 7 세 8 세 9 세 10 세 11 세 12 세

영아용 카시트 (바구니형 카시트)
신생아부터 12개월 미만의 영유아(13kg)는 바구니형 카시트가 적합
바구니형 카시트는 유선형 시트로 아이의 연약한 목뼈를 보호해주고 사고 시 충격을 완화해주며 후방장착 가능

뒤보기 장착
(만 1세 미만의 유아)

10 kg 미만

유아용 카시트 (컨버터블 카시트)
앞보기와 뒤보기 겸용이어서 컨버터블 카시트라고 불림
목을 가눌 수 있고 등걸격이 어느 정도 단단해서 스스로 앉을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카시트.
아이 성장에 맞춰 제품을 조절해 사용이 가능

후방 장착
(9kg 미만의 유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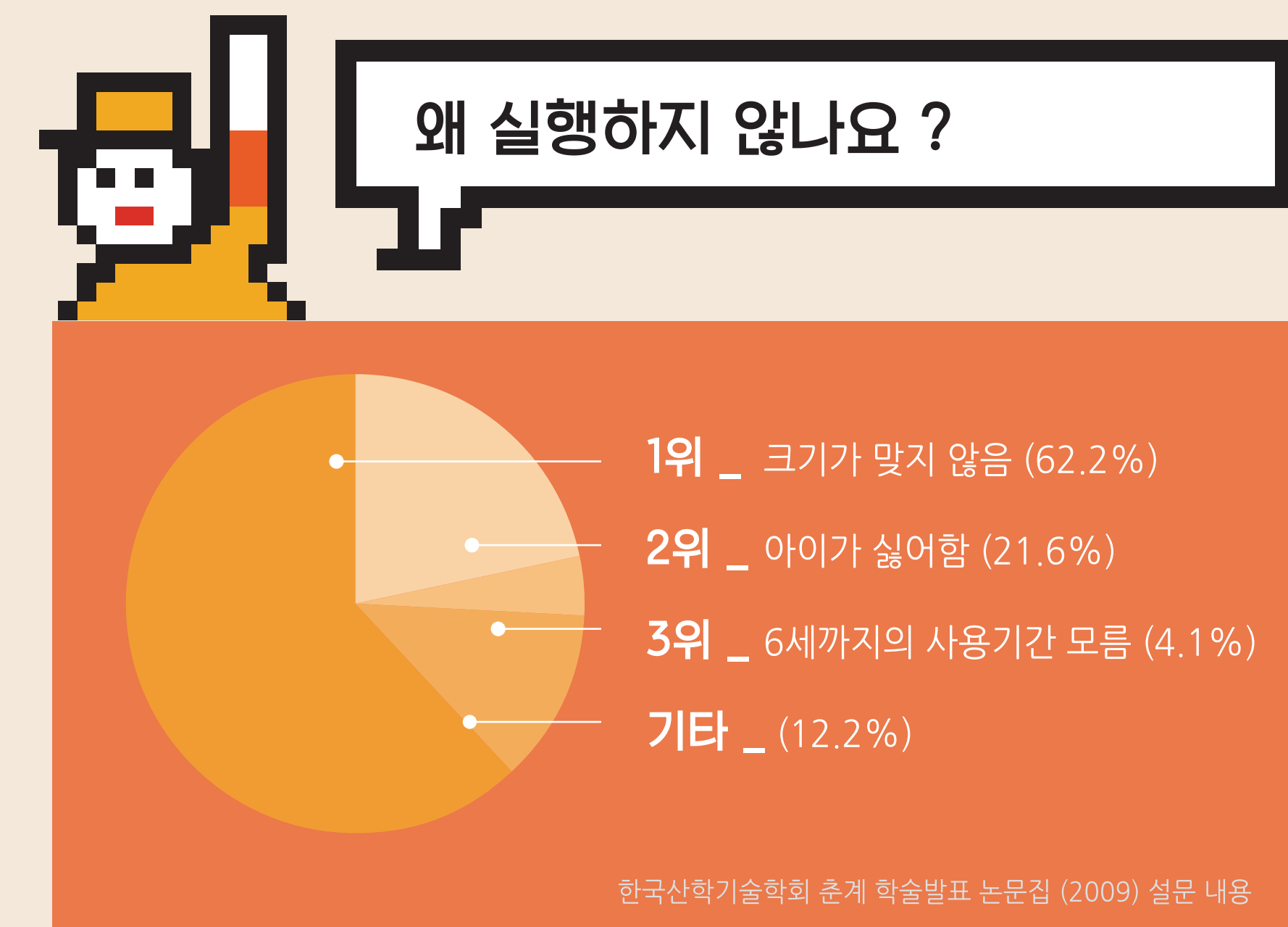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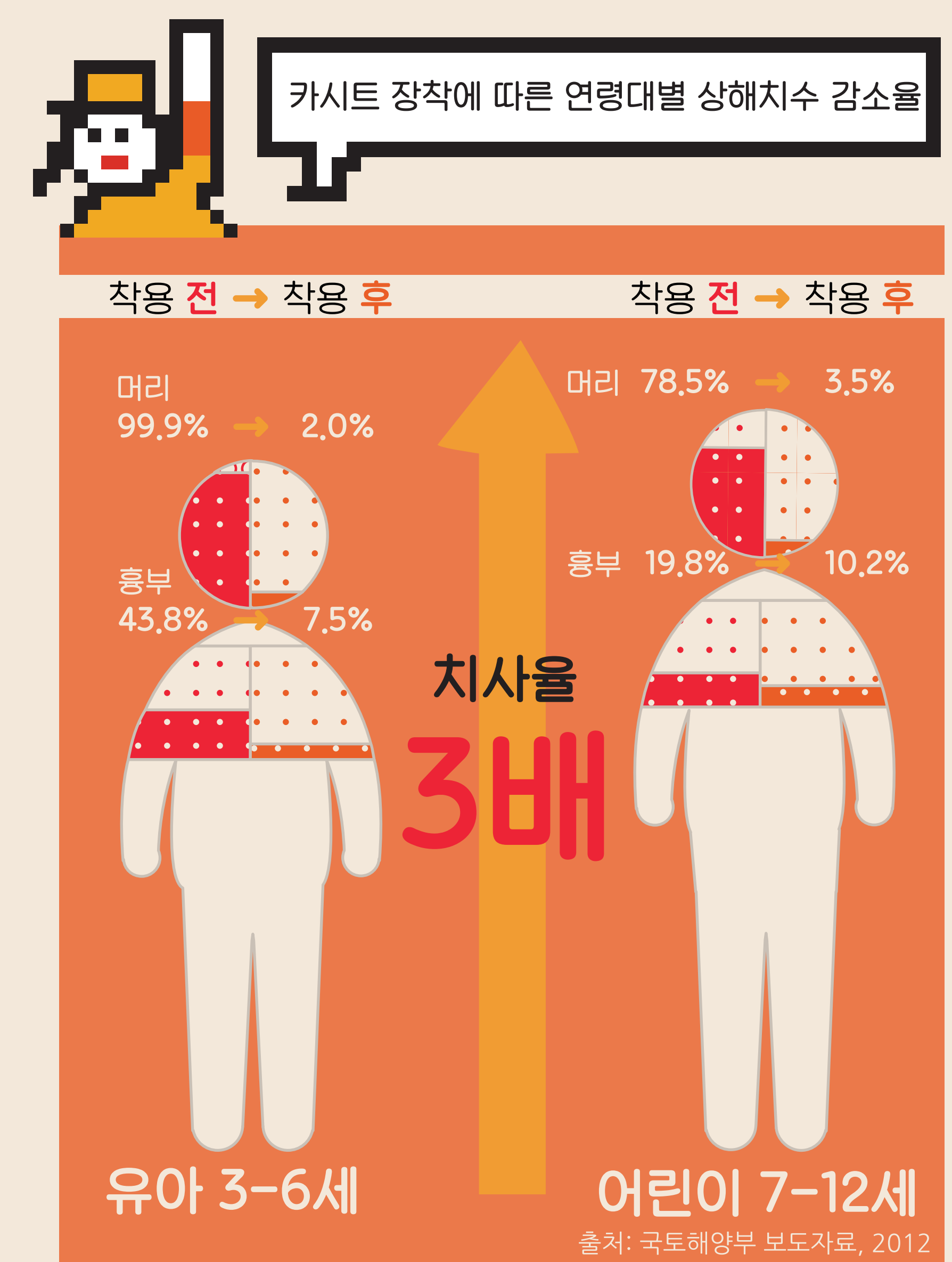
10 kg ~ 18 kg

아동용 카시트 (부스터 카시트)
부스터 카시트는 좌석 위에 올려놓아 어린이의 앉은 키를 높여줌으로써 안전벨트가 제대로 글반과 어깨에 위로 지나가도록 위치를 잡아줌.
앞은키만 높여주는 플라스틱 방식 모양 제품보다는 등받이까지 함께 있는 것이 더 편안하고 안전.

앞은키 조절.
안전벨트가 골반과 어깨에 위로 지나가도록 (성인용 시트 사용)

22 kg 이상

미국고속도로 안전협회에서 아기 연령별 차량 보호장구 종류



카시트, 이렇게 친해져요!

친해지기 하나, “집에서 카시트와 익숙해지기”

친해지기 둘, “카시트를 놀이공간으로 만들기”

친해지기 셋, “시트벨트로 편안한 승차감 조성하기”

알고 계셨나요?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카시트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www.childsafe.or.kr

확인하셨나요?
안전마크는 제품의 안전성을 공인하는 마크입니다.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인증한 KC안전인증마크인지 확인합니다.

TIP

카시트 장착 사상자 중 **사망 및 중상 1.17%**